

art

IN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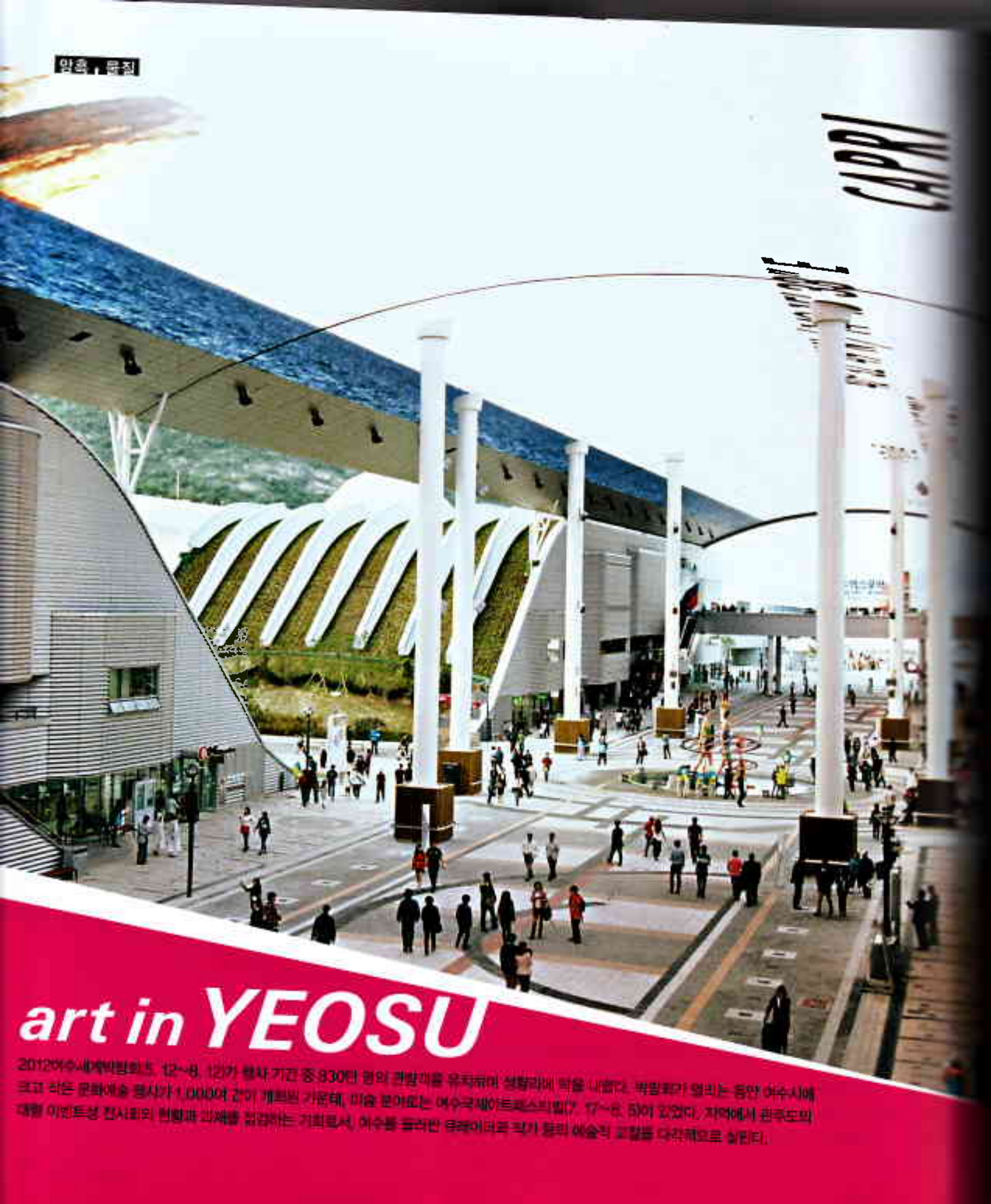
Enjoy!
Biennale
in Korea
SIX

Special
Edition



2012 9

CAPRI



art in YEOSU

2012여수세계박람회 12~8, 12개월 행사 기간 중 93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박람회가 열리는 동안 여수시에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가 1,000여 건이 개최된 가운데, 미술 분야로는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7. 17~21, 5)이 있었다. 지역에서 권주도의 대형 이벤트성 전시회의 현행과 고채를 접경하는 기회로서, 여수를 둘러싼 유라어어과 적가 등의 예술적 고찰을 다각적으로 실현되.

여수에서 보낸 전시공학자의 하루

글 | 김노암 · 아트스페이스휴 대표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과 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 엑스포)를 보기 위해 20년 만에 여수를 찾았다. 여수는 현대미술에서는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십중팔구 여수엑스포가 아니었다면 여수를 방문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이 글은 여수아트페스티벌이나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실상은 한국 사회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들이 퇴행적 문화로서 '관(官) 주도의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수아트페스티벌은 지역에서 열리는 평균적인 수준의 현대미술 전시였다. 구성 또한 일반적이었는데, 지역 미술인의 작품을 모은 전시와 국내외 유명작가와 전국구 작가를 모은 전시로 나누어 기획되었다. 지역 미술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최근 국내외 현대미술 현장에서 기획되는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작가의 작품으로 주제전을 꾸리고, 여수 지역 미술인의 스스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로서의 전시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은 거의 모든 지역 현대미술 축제를 기획하는 평균적인 모습이다.

지역에서 열리는 전시행사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새롭거나 실험적인 기획에는 역부족이거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시각과, 다른 하나는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가 열렸다는 사실을 격려하는 시각이다. 전자는 주로 전시기획 현장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론적 또는 비판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후자는 실제 현장 기획의 경험이 있는 이들의 시각으로 지역의 현실적 여건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소 온정주의적 시각이다. 여수아트페스티벌 또한 이런

두 가지 시각의 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수엑스포 기간에 열리는 여수아트페스티벌은 결코 작은 전시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였으니,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든 결국은 여수라는 도시의 장소성과 그 장소가 불러일으키는 분위기의 문제로 귀결된다. 유별난 여름의 더위 속을 평균 2시간 이상의 대기시간을 견디고서야 관람이 가능한 옥망, 시간과 시간의 비정상적 결합과 계획 오류에도 불구하고, '800만 관객 유치'라는 목표를 향한 총진군이라 할 만한 여수 엑스포의 열기가 어울려 여수를 예술의 선진도시로 가꾸고 홍보하려는 정책과 전략은 너무도 투명하여 순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거대자본과 수많은 이해관계의 층위들이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며 역동하는 주제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보다 정치경제학적인 이해와 비판적인 이론을 요구한다.

2012여수엑스포에서 가장 큰 호응을 끌었던 (Big-O소) 거대한 O자 구조물에 분수쇼와 불꽃 조명, 영상이 어우러져 스펙터클한 장관을 이룬다

왼쪽 페이지
2012여수엑스포 국제관 뒤편 천정에 설치된 초대형 LED 엑스포디지털갤러리 장면
프랑스 작가 샤를 드 모의 영상 및 3D 사운드 작품 <신지께 이야기>가 상영되고 있다.



엑스포의 '위대한 통로', 샤를 드 모의 3D사운드

글 | 프랑크 고트로 · 프랑스르시움 디렉터



(Stretch) 2011_중국 영하네구 판빙빙이 출연한 작품
(Gansh Sun) 2008_UN 커미션 작품
(A Concert for the UFO) 2006_
미국 말파 텍사스에서 촬영한 작품

샤를 드 모(Charles de Meaux) 1967년 이스탄불 출생. 파리에 서 거주 및 활동. 영상 및 사운드 작업을 주로 하며, 영화사 안나 샌더스(Anna Sanders)에서 미술가 피에르 위그, 필립 파레노, 도미니크 곤잘레스 포에스터, 아키텐트 위라세타운 등과 영상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최근 여수엑스포 디지털갤러리에 3D 음향 객 영상을 이우르는 작품을 출품한 샤를 드 모는 내년 퐁피두센터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했다. 남해의 갈라진 해안에 있는 여수에서 개최되는 2012여수엑스포는 바다에 대한 인류 공동의 책임을 발표했다. 바다는 살아있고,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더듬거릴 뿐이다. 1851년 런던에서 제1회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150년 이상이 흐른 이래로 지금까지 예술은 처음부터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럼에도 예술은 마땅히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올바른 자리를 찾지 못했다. 세계박람회의 개념은 나폴레옹 전쟁 막바지에 옛 유럽 대륙의 산업화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중세 직물 전시회와 밀레니엄 시장을 추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세계박람회는 건축, 증기기관, 전기, 그리고 '분열된 유토피아'와 같은 진보적 미래를 실험하면서, 적극적인 발화자이자 또한 현대적 소비자로서의 대중을 소집한다.

1855년 이래로, 살롱전을 연상시키는 선정 절차에 따라 예술은 세계박람회에 포함되었고, 검열과 거부행렬이 동반되었다. 세계박람회 출품을 거부당한 쿠르베는 1855년에 자비로 '사실주의 전시관'을 세웠다. 그보다 더 가깝게는, 1937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피카소는 스페인관에 설치할 그림 <게르니카>를 의뢰받았다. 1958년 브뤼셀 세계박람회에서는 르 코르뷔지에에게 필립스 전시관의 설계를 의뢰했다. 여기에 에드가 바레즈와 이안니스 크세나키스가 함께 작업했다.

1967년 몬트리올 세계박람회에서 박민스터 플러가 지은 미국관은 공간적 성취를 달성한 동시에 현대 회화의 걸작을 한꺼번에 보여 주었다. 특별히 주

문한 리히텐슈타인, 워홀, 스텔라, 뉴먼, 로젠퀼트 등의 작품을 선보인 것이다. 1970년 오사카 세계박람회의 펌프 전시관에서는 여러 명의 예술가가 고안한 감각적 환경을 보여주는 한편, 미국관은 예술가의 각기 다른 경험을 통해 동일한 모티프를 구현함으로써 극적인 대위법을 모색하였다.

그 이후 베트남 전쟁, 석유 파동과 경제위기, 환경 문제가 과학, 산업, 아름다움 등 근대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낙관주의를 해체했고, 대신 냉랭함과 키치 스타일이 마침내 득세하게 되었다. 이것이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출품하는 샤를 드 모의 작품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잣대이다.

거문도 등 전 세계 7곳의 바다를 재구성

여수엑스포 측으로부터 초청받은 작가 샤를 드 모는 각국의 전시관이 한 지붕 아래에 마주하고 있는 연결 통로이자 거대한 홀에서 상영될 10분짜리 홀로그래피 영상을 제작했다. 샤를 드 모는 시각적으로 공명하는 독창적인 악곡을 그려 냈다. 그의 작품은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남남하게 해안선을 따라간다. 영상은 케이프 혼, 카프리만, 하와이에서 유명한 서핑 해변, 호주 동부 해안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그린랜드의 바다, 요르단의 사해, 한국의 거문도 앞바다 등 전 세계의 유명한 일곱 바다의 풍경을 재구성한 것이다.

환상을 보여 주어야만 하는 세계박람회에서, (그러나 실제로는 잘 어우러지기 쉽지 않은 문맥 속에서) 예술은 결국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3D 음향의 역동적인 효과로 얻어 낸 높은 수준의 '환상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억을 불러와, 마치



건축부터
 1958년 브뤼셀박람회 중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필립스 전시관
 1967년 은트리올박람회 중 버민스터 플러가 지은 미국관, 건축뿐 아니라 리히텐슈타인, 워홀, 스텔라, 뉴먼 등 미술가가 참여했다.
 1970년 오사카박람회 설치 전경
 아래 샤를 드 모 <신지개 이야기>
 2012 여수엑스포 출품작



우리가 일곱 바다를 여행하는 것처럼 믿게 한다.
 예술가이자 영화인, 프로듀서인 샤를 드 모는 지금과 풍경의 구상을 다뤘던 작가다. 샤를 드 모는 경계를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다. 즉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그의 작품에 등장하면 곧 배우인 것이다. 샤를 드 모의 전작으로는 <Le Pont du Trieur (2000)>, <Shankent Hotel>(2003), <Stretch>(2011) 등이 있으며, 그의 작품은 전세계의 극장 개봉을 비롯하여 뉴욕의 타임스퀘어, 부산의 바다·빛 미술관에 상영된 바 있다. 샤를 드 모는 관람객과 문화적 또는 사실적 체제를 창작하는 불협화음 속에서 '미장

아빔(mise en abîme)'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캐노피 구조는 길이 210m, 너비40m의 LED 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스크린에 약 10분간 상영될 작품을 의뢰받은 샤를 드 모는 '이미지 내러티브'라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탁월한 사운드에 완벽한 시나리오를 붙여 공간화한 것이다.

거대한 상부 구조물 아래에 자리 잡은 각국 전시관을 따라 경계가 지어지는 극도로 열린 공간 중 한 지점을 선택해, 3차원으로 존재하는 소리를 조밀하게 마티에르를 만들어 넘으로써 모든 음량을 차지하고 있다. 두 개의 오프닝 지점에서 볼 수 있는 경

치는 수평선에 의한 이미지를 드러내지 않고 관객의 가로선을 따라 하늘과 바다를 가르는 '풍경의 띠'를 보여 준다. 하늘과 바다의 수평선을 담은 영상은 주변의 무질서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구조를 이루고 생기를 되찾게 하는 휴식을 가져온다.

샤를 드 모는 자칫 지나치게 쉬운 중심 지역에 빠지지 않고, 이미지를 완전히 그려 내기 위해 한쪽 끝에서 다른 끝을 번갈아 오가며 거대한 디자인 갤러리 화면 전체를 아우른다. 촬영된 풍경의 각 단편에는 좌표(경도, 위도)와 함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명칭이 표기되어 있고, 수평선에는 추상적 글을 덧붙였다.

정신이 흥미해지는 소리는 음향 오브제가 주어진 공간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의 반복판에 관한 객을 태려다 놓는다. 폭풍우, 산들바람, 부시시, 파도, 복잡한 궤적을 따라 날아다니는 새들의 지저귐, 견고한 이야기, 그리고 심상이 창조하는 환상이 주는 놀라운 결과, 관객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가 가지는 추억, 새로운 기억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 음향적 환상이 결합된 추상적 풍경은 작가와 세계박람회의 컨텍스트가 아니었으면 일반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았을 예기치 못한 야심작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더 큰 공통분모이다.

예술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불가능한 컨텍스트를 필요로 한다. 배우 드물게도 나는 이 작품과 세계박람회의 실험에서 그러한 컨텍스트를 보았다. 마땅히 거기에 존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 아직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다. 이는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

